

현장학습 그림 그리다 쫓겨난 초등학생들



“우리는 이런 미술관을 원합니다” 항의 글

“안녕하세요? 광주 풍향초 5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저번 달 4월17일 광주시립미술관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관람 규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안에서 관리자들이 불친절하게 화를 내셨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도중 빨리 전시관 밖으로 나가라면서 재촉하시는 관리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작품을 그리기로 했는데 관리자분들이 방해되며 나가서 그러라고 전시장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학교 친구들만 있었지 다른 관람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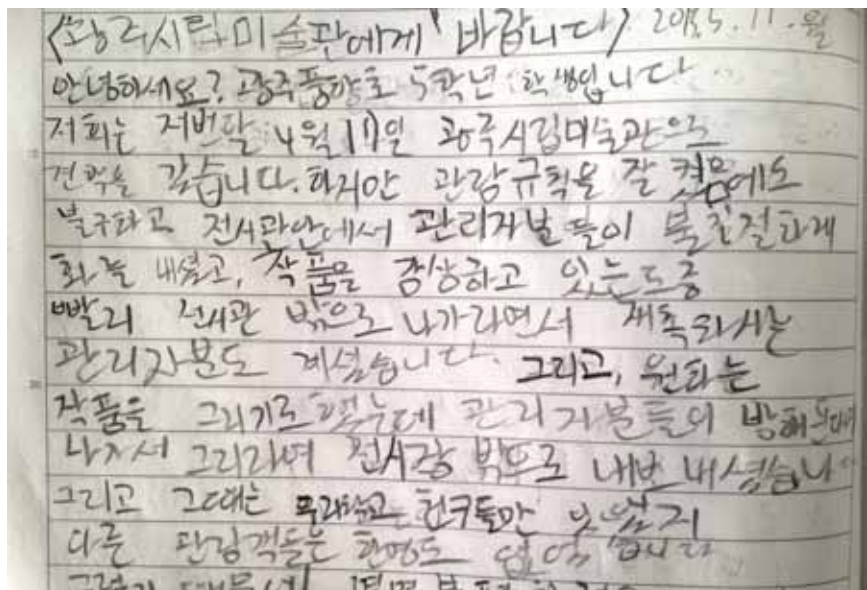
지난달 26일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질문답변란에 광주 풍향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올린 ‘광주시립미술관에 바랍니다’라는 글의 일부다. 이날 미술관 홈페이지에는 같은 학교 학생 5명과 교사 1명의 글이 함께 올라왔다.

사정은 이렇다. 풍향초 5학년 학생 70여 명은 지난 4월 ‘미술 감상’ 수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으로 단체 견학을 갔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따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미술관에 도착한 아이들은 자유롭게 감상을 했고, 작품을 고른 학생들은 미술관에 앉아서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관 관계자들의 눈에 한 홀로 서서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맞춰 다니면서 작품을 보는 아이들이 못 미덥게 보였다. 결국 일부 직원들은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전시장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미술관 직원들에게 실망했던 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국어시간에 ‘광주시립미술관에 제안하는 글’을 썼고, 홈페이지에

친구들과 모여 마음에 드는 그림 따라 그리자
광주시립미술관 직원들 “빨리빨리 보고 가라”
시립미술관, 단체견학 지원 프로그램 만들기로



광주시립미술관 체험 수업을 다녀간 광주 풍향초 학생들이 ‘미술관에 바라는 점’을 적어 홈페이지에 올린 글.

올렸다. 한 학생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미술관에 들어서자 많은 그림이 있다. 그림은 참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관람을 하는데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천천히 보면서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람을 재(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림을 찾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고 조금 화가 났어요. 다음에는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적었다.

풍향초 한 교사는 “초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장난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면서도 “다른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쫓아내셨는데 전시관에는 우리 학교 학생 몇 명만 있었지 다른 관람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아이들을 줄을 세워 같이 관람하면서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달라”는 말

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시립미술관 직원의 말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며 “미술 감상이라는 것이 한 작품을 2~3초 동안 보고 재빨리 지나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생들은 당초 2시간을 계획하고 견학을 갔지만 결국 1시간 남짓 만에 미술관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올린 글에는 ‘미술관 중앙에 의자를 두면 좋겠다’ ‘조금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이 많았으면 좋겠다’ 등 의견이 함께 적혀있었고, 미술관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는 광주시립미술관 직원들이 학생들을 대한 태도다. 평일 오전 관람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질서정연하게 유도해 친절하게 작품을 설명해 주는 모습 대신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선진국 미술관에서는 견학을 학생들이 미술관 내에서 작품을 그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해마다 학생들을 초청해 전시장 내에서 문화재 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학생들의 글에 대한 미술관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미술관 측은 홈페이지에 남긴 300자가 조금 넘는 글에서 “향후 지속적인 전시안내원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견문을 기원한다”고 상투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단체 견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떤 풍경’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

설박 新산수화 전시, 7월 9일까지 스페이스K_광주

작가 설박은 새로운 산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붓으로 먹을 화선지에 옮기는 대신 먹을 먹인 화선지를 골라 찢어 겹겹이 붙이는 풀라주 기법으로 산수화를 완성한다. 먹의 농담으로 산의 실루엣을 살리고 그 여백으로 하늘과 바다를 표현한다. 화폭에는 오직 자연 풍광만이 펼쳐진다. 겹겹이 쌓인 화선지 조각들은 산맥의 입체감을 극대화시킨다.

코요동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스페이스K_광주에서 설박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7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유유자적(遊遊自適)’이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작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베이징장차센터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베이징

에서 새롭게 작업한 연작 ‘어떤 풍경’을 비롯해 12점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표현재로나 구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면서도 현대적 기법을 더한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는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풍경을 주제로 삼아왔다. 그녀가 화폭에 펼치는 풍경들에는 한국화의 서정적인 정서들이 담겨있어서 작가 스스로가 부여하는 내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설박은 “신(新) 산수화 전시에서 속세를 떠나야 했던 유유자적의 사자성이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하는 오늘날의 색다른 유유자적의 기쁨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 열린다. 문의 062-370-594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도의 음식과 그릇이 만났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8일까지 전시회



남태운 작 ‘꽃잎 접시’

음식을 시지정 문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 남도의레음식과 전라도 그릇이 만나는 이색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준, 김명설, 송일근, 남태운, 김기찬, 강현식, 김락겸, 홍성일, 이지현, 유영대, 정희창씨 등이 참여해 ‘요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릇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중요한 계기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첫돌과 결혼, 회갑부터 조상을 기리는 제사상까지 음식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남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남도의레

또 이애섭(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레음식장)씨와 남도의레음식장이수자인 이미자, 조유순, 윤경, 김현지씨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남도 의례 음식을 선사한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체부, 전국 37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광주 동구문화원·강진문화원·담양문화원 포함

‘문화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전국의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판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전국 생활문

화동호회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37개 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 지역 가운데서는 광주시 동구문화원, 담양문화원, 강진문화원 등 3

곳이 선정됐다. 담양문화원은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주민들이 대나무의 색과 소리를 주제로 공연 및 전시 등 종합발표회를 열어 광주 동구문화원 등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이번 지원은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과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의 두 부문에서 이뤄지며, 행사는 주로 매달 마지막 수

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된다. 10월말에는 ‘전국 생활문화제’ 행사를 열어 권역별 생활문화제의 성과를 집약해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활문화프로그램, 권역별 문화제, 전국 생활문화제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일상에서의 문화 체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게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